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그 절실한 이야기를 듣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이야기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부부 간담회 개최(2.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일(금)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 (추진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23.12월) → ②한국의 라떼파파(아빠육아 휴직자, '23.12월) → ③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1.9일) → ④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1.18일) → ⑤혼자서 살아요(미혼 가구, 1.23일) → ⑥아이를 기다리는 가족(난임부부)

이날 간담회는 서울, 경기, 전남에 거주하는 난임 가족 5명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난임가족들은 난임 진단 및 시술 등 임신·출산 준비 과정에서 난임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아울러 2024년 달라진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난임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2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되었다”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되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기존 건강보험 급여 체외수정시술 칸막이(총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폐지 및 체외수정 지원 4회 확대 → 신선/동결 구분없이 총 20회 지원('24.2월~)

**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건보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24.2월~)

*** 전국 17개 시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중위 180%) 폐지('24.1월~)

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 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였다.

- <붙임> 1. 간담회 개요
 2. 2024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
 3.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난임시술비 지원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서기관	최 환 (044-202-3395)



□ **간담회 개요**

- (목적) 난임부부와 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실
효성 있는 난임 지원 정책 방향 모색
 - ▲ 임신·출산 준비와 난임진단, ▲ 난임시술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정책 개선방안 등 논의
- (일시/장소) '24.2.2일(금) 16:30~18시 / 대한상공회의소 11층(서울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참석) 정부(복지부·저고위), 난임부부,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등 10여 명
 - (복지부) 제1차관(주재),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장 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
 - (난임가족) 여성 5명 (35~45세) , 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2명 등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35	(5)	참석자 소개	
10:35~10:45	(10)	인사 말씀	제1차관
10:45~11:50	(65)	의견 청취	
11:50~11:55	(5)	기념 촬영	
11:55~12:00	(5)	마 무 리	

□ **주요 정책**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복지부·광역시·도 협의*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24.1월~)

* (1차)'23.5.19, 2차'23.6.2, 3차'23.12.21)

** '23.7월 9개 광역시·도 既폐지(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24.1월 8개 광역시·도 폐지(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급여 횟수 확대,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횟수 미차감 등 ('24.2월~)

현행			⇒	개선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인공수정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광역시·도와 협의(1월) 및 사회보장협의 완료(1.31),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24.2월~)

현행			⇒	개선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인공수정	5회

- **(난임부부 정신건강 지원)**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 (운영현황, '23년말) 중앙상담센터 1개소, 권역상담센터 7개소 설치·운영 중

- **(상담센터 설치·운영)** 지자체 공모 후 2개소 추가 설치·운영

* (1~3월) 권역별 상담센터 2개소 공모 절차 진행 및 선정, (7~9월) 상담센터 설치·운영

- **(전국 확대)** 국정과제 '25년까지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24.4월)

- 부부당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24년 5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해동 30만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有

붙임3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3.7.27.)

저출산 현황 출생아 수 24.9만명 합계출산율 0.78명	난임시술 신생아 2.3만명 (총 출생아의 9.3%)	쌍둥이 이상 다둥이 1.4만명 (총 출생아의 5.4%)
--	---	---

아이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
지금은	10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다둥이 일괄 140
앞으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만원씩 증액

2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지금은	1명, 5~20일	2명, 10~20일	2명, 10~20일
앞으로는	1명, 5~20일	최대 2명, 10~20일	태아 수에 맞춰 최장 40일

3 난임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4 임신 준비 가임력 검진비 지원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등),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100만원, 2회)

5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년 4개월
앞으로는	소득기준 철폐('24년)	2년('24년), 예외기간 인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4.2월~)

현행(~'24.1월)			→	개선('24.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